



중례 1 - 3

교합고경을 상실한 경우에서의 전악 보철수복 중례

이종현*, 임헌송, 조인호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과 보철학교실

수직고경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교합 평면의 조화가 무너지고 저작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에 적절한 수직고경의 회복과 관계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적절한 교합 평면을 설정하고 교합 관계를 개선시켜서 심미적, 기능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적절한 수직고경의 회복을 위해서 가철성 splint와 provisional restoration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중례의 환자는 65세의 남자 환자로 심한 교합면 마모로 인한 저작의 불편감과 심미적인 이유로 내원하였다.

내원시 하악 좌·우측 중절치, 중절치의 결손이 있었으며 심한 교합면 마모로 인한 임상적 치관 길이의 감소를 볼 수 있었다.

임상적 치관 길이의 증가를 위해서 치관 연장술을 시행하였다.

교합고경의 증가를 위해서 가철성 splint를 약 1개월간 장착하였다.

이때 구치부 이개를 위해서 cuspid-protected

occlusion을 이용하였다.

이후 진단 모형상의 진단 wax-up을 이용하여 제작한 provisional restoration을 이용하여서 교합의 안정을 유지하였다.

악구의 부분적 인상채득후 제작한 Bonnet crown을 제작하였다.

Bonnet crown을 구강내에 장착하고 pick-up인상을 채득하였다. Pick-up인상을 이용하여 개별 작업 모형의 제작후 교합기에 장착하였다.

이후 cuspid-protected occlusion의 교합으로 구치 이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하악 좌·우측 견치를 지대치로 한 6-unit bridge와 하악 좌측 제1,2대구치를 지대치로 한 2-unit bridge를 제외하고는 모든 치아를 single unit으로 수복하였다.

교합 수직고경이 상실된 환자에서 전악 수복을 통한 기능과 심미의 개선이 이루어졌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